옛 것에 새 것 더해 청년작가전 방향 그린다

'제주청년작가전 25년 구본신참(舊本新參)' 출품작 이승수의 '자연과 인간의 갈등'(2005).

도문화진흥원 '구본신참' 전

25년 역사 청년작가전 정리
역대 우수 청년작가 등 초청
53명 출품한 115점 한자리
"청년작가전 혁신 계기로"

그들도 한때 '청년작가'였다. 가능성을 인정받고 쉼없이 달렸고 어느덧 지역 미술계의 중진으로 향해가고 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이 그들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제주청년작가전 25년 구본신참(舊本新參)'이다.

'구본신참'은 '옛 것에 새 것을 더하다'란 의미가 있다. 사반세기 제주 청년작가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려는 뜻을 담아 지었다. 연례 행사인 제주청년작가전 예산을 놓치는 등 곡절이 있었지만 이를 변화의 계기로 전환해 기획전이 준비됐다.

제1회 제주청년작가전은 1994년 4월 개최됐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의 역량을 모으고 창작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첫발을 디뎠다. 당시 29점이 문예회관을 채웠다.

1998~1999년 5~6회 행사에는 미술에 더해 사진, 서예, 시화 작품이 초청됐다. 2000년(7회)부터는 우수 작가를 별도로 뽑았다. 시행 첫해는 오승익 작가가 주인공이었다. 2007년 제14회 제주청년작가전 이후에는 도문화진흥원에서 초대전을 열어주는 우수 작가를 2~4명으로 늘렸다.

이번 전시에는 사진 자료를 포함 역대 우수 청년작가 등 제주청년작가전 출품작가 53명의 작품 115점이 나온다. 공모 형식이 도입된 이래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설치 등 우수 청년작가로 이름을 올렸던 이들의 면면은 곧 제주미술의 오늘이자 미래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문예회관 제1~2전시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 1전시실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는 3전시실에서 제주청년작가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도문화진흥원 측은 "제주청년작가전은 도내 청년작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내는 산실의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기로에 서있다"며 "2019년을 제주청년작가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작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064)710-762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詩(시)로 읽는 4·3 (16)

북촌리의 봄

박은영

한 여인의 젖을 아이가 빨고 있었다
말 못하는 어린 것의 울음이 서모(*서우봉)에서 부는 바람소리 같았다
핏덩이를 등에 업은 어미의 자장가가 들리는 듯한데
젖몸살을 앓던 아침, 붉은 비린내가 퉁퉁 불어 마을을 떠돌아다녔다
새들이 총소리를 물고 둥지로 날아갔다 소란스런 포란의 방향, 꽃을 내준 가지가 동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은 서쪽에서 해가 뜰 일
서모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말 못하는 어린 것의 울음 같았다
뚝뚝, 지는 목숨들 사이
아이는 나오지 않는 젖을 한사코 빨아대고 있었다
어미를 살려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 힘으로 동백꽃이 피고
젖 먹던 힘을 다해 봄이 오고 있었다

시 '북촌리의 봄'은 2014년 4·3평화문학상 시 부문 수상작품이다. 1947년 8월 31일 불법 삐라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북촌주민이 충돌, 쌍방이 부상자를 낸 사건이 벌어졌다. 오전 11시께 경찰은 마을에서 삐라를 붙이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 발포로 3명이 총상을 입었다. 1948년 5월 10일 오후 4시. 북촌투표소가 불에 탔다. 투표용지가 파손되었다. 1949년 1월 17일 마을 어귀에서 토벌대 2명이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마을 원로들은 숙의 끝에 군인 시신을 들것에 담아 함덕 대대본부로 찾아갔다.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간 10명의 연로자 가운데 경찰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해 버렸다. 그리고 장교의 인솔 아래 2개 소대 쯤 되는 병력이 마을을 덮쳤다. 그 때 시간은 오전 11시 전후.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들이닥쳐 총부리를 겨누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교운동장으로 내몰고는 온 마을을 불태웠다. 학교운동장에 모인 1000명 가량의 마을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에 집결시킨 뒤, 주민을 20명씩 묶어 학교 동쪽 당팟과 서쪽 너분숭이 인근 옴팡밭으로 끌고 가 집단 총살했다. 주민학살극은 오후 5시께 대대장의 중지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4·3에 대해 30여 년간 망각과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절, 작가 현기영은 북촌리 대학살을 다룬 작품 '순이삼촌'을 19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면서 4·3을 시대의 한 복판으로 끌어올렸다. 현기영 작가는 4·3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1979년 군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겪었고 '순이삼촌'은 14년 간 금서가 됐다. 또 하나의 4·3 소재의 성장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1999)가 국방부의 불온도서로 선정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단원이 안내하는 조선의 거리 풍경

서귀포예당·안산문화재단 '… 김홍도를 만나다' 전시
영인본·현대작가 작품 동시

단원 김홍도(1745~ ?)가 이끄는 조선시대 거리 풍경 속으로 떠나보자.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단원 콘텐츠전이 서귀포예당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에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다'란 이름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에는 김홍도의 영인본 작품과 오늘날 작가들이 이를 여러 매체로 재해석한 작업을 나란히 선보이고 있다. 교과서에서 봤던 단원의 작품 세계를 흥미롭게 살필 수 있는 자리다.

'단원풍속화첩' 25점은 김홍도의 뛰어난 관찰력과 익살이 돋보인다. 표암 강세황의 그림평이 적혀 있는 산수인물화 '행려풍속도병'에는 조선 후기 서민들 삶의 모습이 생생하다.

시대를 뛰어넘어 단원의 그림에서 모티프를 얻은 현대미술 작품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김홍도 해피니스'는 김홍도 풍속화 특유의 해학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12분짜리 영상이다. '행려풍속도병'을 바탕으로 만든 차동훈 작가의 3D그래픽 영상, '김홍도필 금강산화첩(金弘道筆金剛山畵帖)' 60폭을 영상작업으로 탄생시킨 그림(the 林)의 '환상 노정기'도 볼 수 있다. '철판산수'의 대가 조환, '입체-산수'의 진현미도 자신만의 조형방식으로 단원을 불러낸다.

전시는 8월 25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과 청소년, 가족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전시로 활동지가 제공된다. 문의 064)760-3341.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박성진 개인전 '사려니숲'

박성진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교수가 초록빛 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사려니 숲' 연작이 나왔다.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기법을 이용한 모노톤 작품들로 숲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절제되면서도 은유적인 색채를 통해 표현됐다. 국내외에서 30여회 개인전을 이어온 박 교수는 제주도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문의 064)757-1703.

장성안 '제주 도' 주제 전시

장성안 작가가 '제주 도(圖)'라는 이름으로 제주시 성안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는 백록, 돌하르방, 제주 풍경 등을 다룬 작품이 나왔다. 제주를 색채 추상화와 스케치로 개성있게 담아낸 15점을 볼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국립 미술원에 입학해 15년 동안 체류했던 장 작가는 제주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064)729-9175.

제주도사진대전 작품 접수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제45회 제주도사진대전 응모작 접수가 이달 18~19일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출품일 현재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진인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처는 제주시 동광로 51 광양빌딩 5층 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사무실이다. 심사는 7월 23일 실시된다. 입상작 전시는 9월 28일부터 문예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6811-1133.

문화창작품 홍보·유통 지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개인 창작자나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창작품에 대한 홍보와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개별 홍보마케팅 지원, 기업자율형 해외 시연행사 지원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이뤄진다. 홈페이지(www.ofjeju.kr) 참고. 문의 064)735-0622.

제주 바다가 건네는 위로
고예현 일곱번째 개인전

바다가 주는 위안이 화폭에 담겼다.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고예현 작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다.

'위로를 위한 시간'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이번 전시에는 제주 바다를 다룬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다. 오랜 기간 바다에서 삶의 깊이를 사유해온 작가는 파도가 일렁이는 그곳의 풍경을 여러 빛깔로 풀어냈다.

작가는 시간이 나면 바다로 향한다고 했다. 잔잔함과 격노함을 동시에 품은 바다에 묵은 감정을 풀어놓고 온다. 그래도 바다는 불평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회화과를 거쳐 동대학원 한국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2017년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작가 발굴지원 공모에 선정된 일이 있다. 이번 전시는 이달 11일까지 계속된다.

진선희기자